

간제온지 절

간제온지 절은 진언종(眞言宗)의 사찰로 오모리 중심부에 자리한 언덕 위에서 수세기 동안 마을을 지켜온 오모리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간제온지 절의 역사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800 년 이 마을의 대부분을 파괴한 화재로 간제온지 절의 건물과 기록 모두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사찰이 창건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찰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에서 막부를 대리했던 오모리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이 매년 새해를 맞아 은광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방문했던 3 곳의 사찰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간제온지 절이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1800 년의 화재 이후 재건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현재의 본당은 1800 년대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또한 간제온지 절의 특징인 붉은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이 현재의 장소에 세워진 것은 인근의 유명 사찰인 세이스이지 절에서 이축된 1878 년이었습니다. 산문의 양 옆에는 1980 년에 재건된 좌우 한 쌍의 목조 무사상이 있습니다. 언덕 위 산문으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에는 멋진 지붕이 달린 사당이 있는데, 이곳에는 눈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석조 약사여래상(임제종 묘심사와 이치바타야쿠시교단의 이치바타 약사여래)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상 뒤편에 있는 언덕을 계속 올라가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듯한 모습의 작은 불상들이 다수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